

1인 가구 현상, 미디어 재현, 문화적 함의: TV 드라마 <혼술남녀>에 대한 기호학과 담론 분석

Societal Phenomenon of 'Single-Person Household', Media Representations and Cultural Implications: A Semiotic and Discourse Study on <Drinking Solo> of tvN

백진주, 백선기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Jinju Baek(jinjukebox@gmail.com), Seon Gi Baek(baek99@skku.edu)

요약

최근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0년대 이후 1인 가구의 생활상을 주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다수 방영된 사례를 통해 1인 가구가 하나의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vN 드라마 <혼술남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사구조 분석, 계열체 분석, 행위주 분석 등 기호학적 분석 방법들과 담론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1인 가구를 소재로 한 드라마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청년세대 1인 가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구성하는 서사구조와 갈등 관계, 담론을 통해 1인 가구의 특성을 발견하였고, 그러한 특성들에 내재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발견하였으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현상에 대한 문화적 함의에 대해 고찰하였다.

■ 중심어 : | tvN<혼술남녀> | 1인 가구 | 미디어 재현 | 기호학적 분석 | 담론분석 | 이데올로기 |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 is increasing rapidly. It brings about changes in the societal-cultural aspect. Examples of television programs focused on their lifestyle provoked the societal attention as a important social agenda. This research investigated to figure out inherent ideologies in <Drinking Solo> of tvN through Semiotic and Discourse analyses. As a result, predominant ideologies were revealed on the basis of representations of such single-person households. The authors also tried to find out how the media represent attitud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figure out how the media approach their ways of lives on bases of specific discourses and ideologies.

■ keyword : | tvN<Drinking Solo> | Single-person Household | Media Representations | Semiotic Analysis | Discourse Analysis | Ideology |

I. 서론

1. 연구 동기: 1인가구 현상과 미디어 재현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혼자 사

는 1인 가구의 수가 최근 30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 1인 가구는 수적 증가와 함께 혼술(혼자 마시는 술)·혼밥(혼자 먹는 밥)·혼놀(혼자 놀기) 등으로 대표되는 '나홀로 문화'를 파생시키며 사회·문

화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텔레비전을 포함한 다수의 미디어에서는 1인 가구의 수적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생활상의 변화와 문화적 특이성을 반영하기 보다는, 기존 가족 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1인 가구에 대한 편견 섞인 모습만을 조명해왔다[2][3]. 주로 이혼, 사별, 그리고 장기간의 미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비자발적 1인 가구에 대한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모습들이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렇듯 미디어에 재현된 1인 가구는 다소 외롭고 비참한 모습으로 비춰지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가족구조를 선망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있게 되었다.

이전의 1인 가구에 대한 재현이 '비정상성'을 연상시키며 기존 가족 구조를 강조하는 역할을 했다면, 201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다수의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1인 가구를 하나의 가구 형태로 인정하며 재현의 주요 소재로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3년부터 방영 중인 <나 혼자 산다>(MBC)와 2016년 방영을 시작한 <미운 우리 새끼>(SBS) 등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은 1인 가구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나홀로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즐기는 양면성을 보여줌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재현의 폭을 확장하였다. 먹는 방송을 뜻하는 '먹방'은 '쿡방'으로 진화하여 혼자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식탁을 차리거나 초 간단 레시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이되었다. 2013년, 2015년에 시즌제로 제작된 tvN의 <식샤를 합시다> 시리즈나 2016년에 방영된 <혼술남녀>(tvN)와 같은 드라마 역시 1인 가구를 단순히 혼자 사는 사람들로 그려내는 데 그치지 않고 명암을 사실성 있게 드러내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인 가구 드라마'를 표방한 <식샤를 합시다>의 첫 번째 시즌이 방영되기 전까지 드라마에서 가족은 주로 드라마의 각 에피소드를 연결 짓는 하나의 모티브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드라마는 1인 가구라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집중함으로써 프로그램 속에 재현되어온 가족 간의 관계,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변화를 드러내는 한편,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사회 현상을 제시했다.

2. 연구목적

이들 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1인 가구의 고충과 '나홀

로 문화'를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1인 가구의 양면성은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이 1인 가구의 '나홀로 문화'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나이의 자발적, 비자발적 1인 가구, 그리고 1인 가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함의를 갖게 되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앞으로 크게 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디어의 재현이 대중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1인 가구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사회현상인 1인 가구 현상이 미디어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으며, 그러한 재현들 속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들이 무엇이고, 이들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함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의의

본 연구는 최근의 보편적 현상이 된 1인가구에 대한 미디어 재현과 그러한 재현에 내재된 함축 의미와 이데올로기를 파악하여, 증가하는 1인가구로 인해 변화되는 사회현상과 그로 인한 파장을 살펴보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1. 1인 가구의 개념

1.1 1인 가구의 정의

'1인 가구'라는 용어는 2005년 통계청이 1인 가구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는 1인 가구가 주로 '단독가구'로 불렸으며, 영문으로는 single-household, singleton 등으로 불리었다. 1인 가구는 형성요인에 따라 '자발적 1인 가구'와 '비자발적 1인 가구'로 구분되며,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구분으로는 '청·장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 가구'로 나뉜다[4].

1인 가구는 통상적으로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법적 배우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가구 형태로 정의된다. 독신가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독신'이라는 용어는 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혼자 생활하며 스스로 가계를 꾸

려나가는 독립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의미에서 배우자나 동거인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사회가 진행된 일본에서는 이 같이 이혼하거나 사별을 통하여 독신자들이 많아 지면서 1인가구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5-7]. 그런데 우리사회는 아직 고령화사회로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고 한국 문화의 독특한 현상 때문에 노인들의 1인 가구는 아직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경제적 위기와 기회의 불균형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1인가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1.2 1인 가구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1인 가구와 싱글(single)에 대한 개념은 2007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언급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싱글 이코노미(single economy)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유한 도시를 지배하고 형성하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전문성을 지닌 20~30대 싱글들이며, 이들이 소비 트렌드를 좌우한다'고 발표되면서[8] 싱글족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이 부각되었다.

1인 가구는 경제적 주체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이는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규모가 다른 가구들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1인 가구의 소비 지출 규모는 2006년 16조원에서 2010년 60조원까지 증가하였으며, 2030년에는 194조원으로 전체 민간 소비의 1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1인 가구가 경제적 주체로 떠오르면서 '나홀로 문화'를 적극 향유하며 소비하는 사람들이 '파워컨슈머'로 주목받고 있다[9].

1인 가구가 2인 이상의 가족에 비해 소비 지출 규모가 큰 이유로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의 부재를 꼽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타의 가족 구성원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적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가족 구성원을 부양하는 부담이 적은 만큼 자기계발, 여행, 건강관리 등 소비목적이 자기중심적임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전의 1인 가구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었으나 최근의 1인 가구는 소셜 미디어(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인맥을 확보하고, 낯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자원봉사 참여비율

도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10]. 다인 가구가 가족에 시간을 쏟는 동안 1인 가구는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등 개인을 위해 시간과 금전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11].

2. 1인 가구와 가족변동

2.1 1인 가구 확산 요인

1인 가구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비혼, 만혼, 이혼 등의 가족 회피 행동은 산업화 사회와 후기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의 사회변동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개인의 부상, 여성의 지위향상, 도시 성장, 통신기술 발달, 생활주기의 확장 등과 같이 1인 가구를 야기하는 사회적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2].

정보통신기술은 가상공간을 창출하고, 새로운 관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1인 가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이 만들어낸 가상공간은 타인과의 물리적 접촉과 분리되어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꾸준히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가상세계는 혼자 있어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장이 되고 있다[13].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익명성과 상호무관심이라는 도시적 감수성은 개인이 사적 영역에서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유롭게 많은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및 기술의 발달은 공간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리적 접촉의 결핍을 해소하고 타인들과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회학자 클리넨베르그(Klinenberg, 2012)는 1인 가구를 사회적 소외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1인 가구일수록 혼자 거주하면서 느끼는 사회적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려 한다고 주장한다[14]. 이러한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 기기의 발달은 물리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조차도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한다. 도시의 삶의 여건들 역시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도 물질적, 정신적 욕구들을 쉽게 충족시킴으로써 개인화를 추동하는 힘으로 작동한다[13].

2.2 한국 가족의 개인화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개인은 독립되거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에 얽매이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는 개인을 보호해줄 사회적 기제가 부재한 상태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로부터 개인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 기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대화는 국가에 의한 개혁과 산업화전략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의 자율성 및 권리는 가족과 사회, 국가를 위한 동원요소로 활용되어 왔다. 우리 사회는 부계혈통에 근거한 위계적 가족구조를 토대로 '낭만적 사랑'이라는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개인 구속성과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근대가족담론을 형성했다[15].

1990년대 이후 이렇게 구성되고 정착된 핵가족 구조의 토대가 균열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가족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IMF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급격한 사회변화와 이로 인한 가족 파괴 현상이 나타났다. IMF를 기점으로 한 글로벌 경제로의 편입과 한국 사회가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된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는 성별에 근거한 가부장제의 토대를 해체하거나 재구성하여 가족 내외적 질서를 더욱 불안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제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은 이전까지 가족의 영역에 속해있던 가족 돌봄과 부양의 책임을 재구성하였다. 이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보편화로 '개인'적이고 익명적인 공간에서의 자유로움과 해방감을 맛보게 되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15].

2.3 개인화와 자기오락화

자기오락화는 '삶 자체가 내재적 동기 목표이자 일상의 모든 일에서 흥미를 갖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특히 정신적 활동, 신체적 활동,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유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면서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16]. 만넬(Mannell, 1984)은 똑같은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서조차도 여가활동에서 느끼는 개인의 만족감이 다를 것이라는 데 자기오락화의 의의를 두었다. 바넷

(Barnett, 2006)은 자기오락화 능력이 일이나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와 선호를 촉진하며, 나아가 여러 가지 개인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17].

자기오락화의 개념을 1인 가구의 일상에 적용하면 혼술(혼자 마시는 술), 혼밥(혼자 먹는 밥), 혼놀(혼자 놀기), 혼행(혼자 여행) 등 '나홀로 문화'를 즐기는 '혼족'들은 일하는 시간 외에 주어진 자유 시간을 자기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혼자임을 즐긴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혼밥'의 예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자기오락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공동체 중심 문화의 영향으로 이전까지는 '혼밥'을 공동체 정신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풍조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의 '혼밥'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개인이 가장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사문화로 인정받고 있다.

3. 텔레비전의 가족 재현

3.1 텔레비전 드라마와 가족 재현

윌터스(Walters, 1995/1999)는 TV는 현대사회의 대표적 현실 재현과 가치의 재생산 도구라 한다. 또한 사회의 주류담론과 이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적 텍스트라고도 한다. TV 프로그램과 같이 매체에서 생산하는 콘텐츠는 동시대에 공존하는 다양한 가치와 입장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보이며 현실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강조하거나 축소해 재생산한다. 결과적으로 TV는 사회의 지배적이고 선호되는 가치를 재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의 현실 재현에 대한 논의는 TV를 포함한 대중매체들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 현실을 재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이동한다. TV 드라마에서 표현된 가족의 재현 연구를 위해서는 가족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보여주는 가족들이 만들어내는 그 시대의 풍속도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18].

한·중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가족관계 재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재현된 가족관계는 사회 내 가족주의와 문화적 실천을 형성하는 담론 실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드라마가 재현한 가족의

모습은 가족에 대한 하나의 진실체계(regime of truth)를 구성하고 그것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행동양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19].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에서 가족 재현은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다. 홈드라마가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온 것이 이를 입증한다. 1인 가구는 기존의 가족 구조와 상반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의 등장만으로도 기존 드라마의 가족 재현 방식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변화의 특이성뿐만 아니라 기존 가족과의 관계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3.2 1인 가구 증가와 방송 트렌드의 변화

1인 가구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사회적 이슈로 관심받기 시작했다.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만들어낸 사회 변화가 일정한 트렌드를 형성하면서 이로 인한 과급 효과의 확대·재생산에 대한 언론 및 사회 각 분야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20]. 메트릭스(MetriX)가 시행한 싱글족 관심 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식사(38.4%)와 주거형태(24.9%)가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며 1인 가구가 의식주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가, 인테리어, 쇼핑, 반려 동물 등이 상위를 점유했다. 먹방, 쿡방 등의 음식 프로그램과 셰어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여행과 반려견 등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의 증가 현상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21].

주창윤(2013)은 무기력증이나 욕구 불만으로 나타나는 마음의 문제를 ‘정서적 허기’로, 사회 구성원 다수가 이러한 갈증과 배고픔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를 ‘허기 사회’라고 진단한다. 그는 이러한 정서적 허기가 경제적 결핍·관계적(문화적) 결핍에서 발생하며 관계의 배제나 과잉으로 맥락화 된다고 설명한다[22]. 정서적 허기에 대한 그의 논의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관계의 결핍이 미디어를 통해 대리 충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인 가구 증가 현상에 따른 미디어의 변화가 아직까지는 음식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청자들의 정서적 허기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미디어 콘텐츠가

고립된 개인에게 사회적 경험을 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미디어 재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 쟁점들을 알아보고자 했다. 또한 이러한 주요 쟁점들이 형성하는 담론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1인 가구에 대한 미디어 재현에 내재한 이데올로기와 사회·문화적 함의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했다.

[연구문제1] 드라마 <혼술남녀>의 서사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연구문제2] 프로그램의 재현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6년 케이블 채널 tvN에서 방영된 <혼술남녀>이다. 이 작품은 1인 가구를 소재로 16부작으로 방영되었다.

혼자 마시는 술을 뜻하는 ‘혼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여기서 ‘혼술’은 혼자 술을 마시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1인 가구의 ‘나홀로 문화’를 대표한다. 취업을 위해 노량진에 모인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하 공시생)들과 노량진 공무원 시험 대비 학원의 강사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나홀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혼술남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혼술남녀>가 기존 드라마들에 비해 1인 가구의 다양한 모습을 재현하고 있고, 최근 우리 사회의 YOLO(You Only Live Once) 열풍과 더불어 1인 가구로서의 삶이 갖는 다양한 측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YOLO를 1인 가구와 연결 지으며 혼자 사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조명하는 기존 프로그램들과 달리 어두운 현실을 사실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표 1. 본 연구의 분석틀: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연구문제	분석방법	중심내용
RQ1. (혼술남녀)의 서사구조	서사구조 분석	서사 구성의 특징
RQ2. 재현을 통해 나타나는 1인 가구의 특징	계열관계 분석	인물별 계열관계 및 속성
	행위주 분석	주요인물 행위의 목적과 동기 파악
	담론 분석	담론의 의미 파악
	이데올로기 분석	이데올로기 파악

2.2 분석방법

1) 서사구조 분석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구조는 일정한 스토리와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드라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서사구조분석은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호체계들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의미작용 하는지 밝혀냄으로써 담지된 사회문화적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이다[23].

서사구조 분석은 기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통합체 분석과 관련 있으며, 텍스트 내 기호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합되는 관계를 통시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다.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 내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에 주목한다. 통합체 분석은 텍스트의 흐름을 통해 형성되는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밝혀내는 과정이다. TV 드라마의 서사물이 하나의 기호적 서사구조를 지닌다고 보고, 이러한 서사물을 하나의 텍스트로 규정하고 분석하는 것이다[24].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이야기의 중심 서술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서술구조 내의 중심인물들의 대립 및 보완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술구조에 담긴 중심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25].

2) 계열체 분석

계열체는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관계들과 기호들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뜻한다[26]. 계열체 분석에서는 공통점을 지닌 속성들이 유사성에 따라 각각의 범주를 이룬다. 유사성의 범주에 속한 계열적 속성의 단위들은 동일 범주 내 다른 항목들과 갈등·대립관계를

형성한다. 계열체 분석 과정에서는 계열들의 유사성보다 이항 대립적 측면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상호 대립하는 요소들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텍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의미에 각각의 가치가 다르게 부여되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26]. 계열체 분석이란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위들의 관계와 분류, 대립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이며 인물 관계 역시 대립적 속성을 가지며 맺는 의미를 파악한다.

3) 행위주 분석

그레마스(Greimas)는 기호학적 개념과 분석틀을 주체(subject)와 목표(대상, object)의 관계와 이들의 행위에 대해 분석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그는 언어학에서 주체와 목표, 발신자와 수신자, 협조자와 반대자의 대립을 중심으로 도식화하였다.

행위주 모델에서 중심 개념은 주체와 주체가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대상)이다. 주체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성립하며, 주체를 중심으로 한 협조자와 반대자의 대립관계가 형성된다[27]. 행위주 모델은 세 개의 축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욕망의 축으로 주체가 목표를 갈망하는 관계를 드러낸다. 두 번째 축은 전달의 축이며 발신자가 수신자를 향해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전달한다. 세 번째 축은 주체를 중심으로 협조자와 반대자의 관계로 구성되며, 주체가 목표를 갈망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행위주 모델은 이 세 가지 축이 합성된 결과물이며, 그 안에 '욕구(욕망의 축)', '지식(전달의 축)' 그리고 '능력(능력의 축)'의 양태를 구성한다[28].

행위주 분석을 통해 주체가 되는 인물의 행위와 역할을 명료하게 밝혀냄으로써 분석의 표층적·심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행위주 모델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결핍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 목표를 욕망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발신자가 주체가 추구하는 목표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협조자와 반대자의 상반된 관계는 주체가 목표를 욕망하고 추구하는 과정을 돕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행위주 분석은 서사 구조 내 모든 행위자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주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 구조와 목표 추구 행위의 의미를 명확

히 드러낸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림 1. 행위주 모델

4) 담론 분석

담론은 기호구성체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특정 맥락에서 발화자와 청자가 함께 참여하며 발생함을 전제로 한다[25]. 푸코(Foucault)는 권력의 생산성을 강조하며, 담론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통해 권력이 작용한다고 한다[29]. 푸코에게 담론은 언제나 권력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며, 담론분석은 이러한 권력관계에 대한 탐구와 관련된다. 푸코가 말하는 권력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 관계를 횡단하며 존재하는 미시적인 개념으로 규정된다. 담론이란 ‘텍스트를 발화하는 주체들이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의도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성한 서사성’을 의미한다[30]. 또한 담론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회적 기호들의 집합체이므로 그 형태와 의미도 계속 변화한다. 이에 따라 의제에 의한 거대 담론은 여러 갈래의 하위 담론들을 생성하며, 하위담론들은 개별적인 서사구조를 지니며 새로운 담론들을 구성한다[31]. 따라서 특정 사안이나 대상에 대한 담론분석을 위해서는 고정된 텍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정황, 맥락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32].

담론 분석은 중심주제에 대한 담론의 흐름과 연계된 인물 및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다. 담론은 텍스트를 발화하거나 청취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맥락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텍스트 내 기호작용들을 부각시킨다[33]. 텍스트 내 담론들에 대한 분석은 담론에 내재된 중심 사상과 의미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34].

5) 이데올로기 분석

매스미디어는 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겐 권력을 집중시킨다. 미디어는 메시지를 수직적으로 전달하며 대중의 수동성을 조장하는 한편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 매스미디어에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침투하여 특정 영역 내에서 지배적 의미를 갖게 한다. 미디어 텍스트를 구성하는 기호들은 기표와 기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서 기의는 신화와 연계되고 의미 확장 단계를 거치며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표출하게 된다. 텍스트 내의 사회적 기표는 사회적 의미로 전이되고, 이들 사회적 의미는 보편성을 띠면서 이데올로기적 의미로 전이되는 것이다[34].

드라마는 서사구조나 인물 간의 관계 혹은 드라마에 내포된 신화에 따라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함축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서 호명’하고, ‘사회에 개인들을 종속’시키며, ‘이 둘 사이를 상호 연계’시키면서, ‘모든 것이 자연적이라고 인식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만들며, 이데올로기적 존재가 된 개인은 무의식적인 주체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므로 사회의 기존 질서를 유지시키려 한다[35]. 수많은 하위 이데올로기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상위 개념인 주체로서의 전체가 유지되는 질서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논의하는 데 있어 권력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데올로기에서의 권력이란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닌 지배계층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피지배계층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한 힘이다[36]. 기호를 통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심층적인 의미 단계를 이데올로기로 보는 시각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37].

IV. 연구결과

1. <혼술남녀>의 서사구조 분석

드라마 <혼술남녀>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개의 서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서사는 1인 가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자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사들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주요 등장인물인 박하나를 중심으로 한 ‘능력과 학벌 극복서사’가 중심서사로서 드라마의 큰 축을 이룬다. 이 서사는 경력 없는 신입 강사가 노랑진의 공무원 시험 학원에 입사해 학벌, 경력 등의 차이로 받는 차별을 극

복해가는 과정을 드러낸다. 강사로서의 능력 차이에서 발생한 한계와 고립을 극복하는 이 서사는 사회에서의 능력이 1인 가구로서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숙고하게 만든다.

두 번째 중심서사는 노량진 학원가의 인기 강사인 진정석을 중심으로 한 ‘사회성 극복 서사’이다. 배타적인 태도로 자신의 이익만 좇던 진정석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틀을 깨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결여된 사회성을 회복하는 서사다.

능력과 학벌 극복 서사, 사회성 극복 서사의 시작점은 노량진에서의 새 출발이다. 이는 중심서사를 이루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에게도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 노량진 공무원 시험 학원의 강사 황진이와 민진웅은 박하나가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진정석이 사회성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비자발적 1인 가구의 모습을 재현하며 ‘외로움 극복’이라는 보조서사를 파생시킨다.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두 사람이 비자발적 1인 가구 유형 중 하나인 미혼여성과 이혼남을 각각 대표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외로움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노량진 학원가의 중심인물로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진다. 세 명의 학생이 ‘공무원 시험 합격’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각자가 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역시 서사구조의 한 갈래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서사구조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각각의 서사는 1인 가구를 대표하는 각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지향점과 고충을 갖고 살아가는지 재현하며, 각 인물들의 최종 목표는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유지·추구하거나 1인 가구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연계된다.

표 2. <혼술남녀>의 시퀀스 분석

	중심서사 (능력과 학벌 극복 서사)	중심인물: 박하나
시퀀스1	노량진 신입강사로 시작, 학벌, 경력 차이 등으로 차별 겪음.	
시퀀스2	종합반 결성 위한 노력과 갈등.	
시퀀스3	종합반 합류하나 좌절.	
시퀀스4	실수 만회 노력, 진정석과 애정관계 형성(피지배적).	
시퀀스5	진정석과 관계 틀어짐, 스스로 고립 선택.	
시퀀스6	관계문제 해결, 강사로서 자립하는 새로운 도전 시작.	

	중심서사2 (사회성 극복 서사)	중심인물: 진정석
시퀀스1	‘공시패스’ 로 이직.	
시퀀스2	종합반 결성을 두고 다른 강사들과 갈등.	
시퀀스3	종합반 결성, 다른 강사들과의 우호적 관계 발생	
시퀀스4	박하나와의 애정관계 형성(지배적).	
시퀀스5	동생 공명이 박하나를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관계 정리.	
시퀀스6	다른 사람과 관계 맺으며 존중하는 법을 배움.	

	보조서사1 (외로움 극복 서사)	중심인물: 황진이, 민진웅
시퀀스1	‘공시패스’ 강사들이 종합반 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함.	
시퀀스2	황진이는 결혼하고 싶어 하지만 남자친구와 결별.	
시퀀스3	황진이가 민진웅과 하룻밤을 보내고 임신을 하게 됨.	
시퀀스4	결혼, 외로움 충족.	

	보조서사2 (능력과 학벌 극복 서사)	중심인물: 김동영, 김기범, 진공영
시퀀스1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한 도전 시작.	
시퀀스2	동영의 실연과 친구들과의 절교 선언.	
시퀀스3	도전에 대한 결심을 확고히 하면서 동영의 마음을 돌림.	
시퀀스4	자신들의 결심만큼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고 좌절.	
시퀀스5	애정문제에 서로 얽히면서 우정에 금이 감.	
시퀀스6	시험에 실패하지만 재도전을 결심하면서 우정 회복.	

2. <혼술남녀>의 계열체 분석

드라마 <혼술남녀>는 공무원 입시 준비 학원가를 배경으로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들이 겪는 내적·외적 갈등을 재현한다. 계열체 분석은 1인 가구를 대표하는 등장인물들의 사회적·경제적 능력 및 지위 그리고 기존 가족들과의 관계가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항대립구조를 통해 드러낸다.

이항대립구조는 크게 여섯 가지 틀에서 분류된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대립에서는 안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경제력 추구하고 기존에 확보한 경제력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대립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능력을 둘러싼 이러한 대립은 결과적으로 안정성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양한 기회를 추구하는 박하나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김 원장과의 관계에서도 대립 구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강의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박하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능력을 입증할 기회이며, 이를 평가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김 원장이다. 이와 같은 대립 관계는 불확실성을 피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또한 경제적 이익에 따라 주도권이 오가는 대립관계는 ‘물질 만능주의’로 이어진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 ‘학벌의 대립’이다. 계열체 분석을 통해 서울대와 비서울대로 나뉘는 서울대 중심주의가

드러난 반면, 전문대 출신과 명문대 출신 학생들이 학벌에 대한 상반되는 태도를 보이면서 공통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학벌 중심주의의 균열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능력 측면에서의 비교’는 1인 가구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과 이어진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등장인물들의 태도와 행위를 중심으로 계열적 속성을 살펴보면, 능력을 확보하거나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물 간 대립이 ‘성과 중심주의’와 연계됨을 알 수 있다. 넷째, ‘성공에 대한 집착’ 또한 대립구조의 기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 자체를 자기만족의 도구로 보는 반면, 성공이 타인에 대한 보답의 수단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다섯째,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 이항대립을 통해 각자 안정감을 위해 소속감을 추구하거나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 속에서 얻는 자유로움, 해방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이항대립구조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독립의 의미,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가 새로운 갈등으로 떠오르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3. <혼술남녀>의 계열체 분석

주요쟁점	이항대립
경제적 측면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력 획득 추구 vs 확보한 경제력 유지 •다양한 기회 요구 vs 성공 보장 우선 •능력 검증 우선 vs 경제적 이익 우선
학벌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서울대 vs 서울대 •전문대 vs 4년제 명문대
능력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득권 vs 비기득권
성공에 대한 집착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만족 vs 타인에 대한 보답 •타인의 인정 vs 경제적 안정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감 추구 vs 선택적 고립 •경제적 풍요로 얻는 만족 vs 빈곤에서 오는 불안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태도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책임 vs 독립 희망 •부양자 vs 피부양자

주요쟁점	표출되는 의미
경제적 측면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성 선호 •확실성 선호 •물질 만능주의
학벌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대 중심주의 •학벌중심주의의 균열
능력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중심주의
성공에 대한 집착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객관적 성과 추구 •주체성 확립
1인 가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감 추구 •자기만족도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대한 태도 대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간 유대 변화 •경제적 책임

3. <혼술남녀>의 행위주 분석

<혼술남녀> 서사구조의 중심인물과 주요 사건을 바탕으로 행위주 분석을 적용하면 주체의 목표 추구 행위의 동기와 의미가 드러난다.

박하나의 ‘한계 극복에 관한 행위주’에서는 경력 없는 신입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강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심층적으로 편견과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하고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로서 자립 능력을 획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진정식의 ‘사회성 회복에 관한 행위주’는 표면적으로 노량진의 인기 강사가 배타적인 태도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심층 분석에서는 타인의 배신에 대한 자기보호 기제로서 고립을 선택했음이 드러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자들 덕분에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미혼녀 황진이는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 내면에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희망이 깔려 있다. 이혼남 민진웅이 표면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은 황진이와 다르지만, 심층적으로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안정감을 얻고자 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공무원 지방생 김동영, 김기범, 진공명은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지만 심층 분석을 통해 경제적 안정 추구, 자아성취감 획득, 기존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 등 추구하는 목표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4. <혼술남녀>의 행위주 분석

박하나의 한계극복에 관한 행위주		
구분	대상	강의 능력 인정
	발신	편견과 차별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수신	자립 능력 획득
↓		
심층의미	경제적 능력확보	

진정성의 사회성 회복에 관한 행위주		
구분	대상	배타적 이익 추구
	발신	신뢰 상실, 배신에 대한 두려움
	수신	선택적 고립



심층의미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보호
------	----------------

황진이외의 소속감 추구에 관한 행위주		
구분	대상	가정 꾸림
	발신	의지할 곳 없는 불안감
	수신	결혼을 통한 안정감 획득



심층의미	외로움 극복, 소속감 추구
------	----------------

민진웅의 정서적 안정감 추구에 관한 행위주		
구분	대상	가정 유지
	발신	가장으로서의 의무 실패
	수신	새로운 관계로 책임의식 회복



심층의미	안정감 추구
------	--------

김동영의 목표달성 욕구에 관한 행위주		
구분	대상	공무원 시험 합격
	발신	가족의 도움과 희생
	수신	가족을 위한 보상



심층의미	경제적 안정 추구
------	-----------

김기범의 자아성취감 획득에 관한 행위주		
구분	대상	취업
	발신	장래에 대한 불안감
	수신	목표달성 과정에서의 자기만족



심층의미	성취감 획득
------	--------

진공명의 자립 욕구에 관한 행위주		
구분	대상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발신	가족의 불신과 간섭 거부
	수신	자립능력 검증 욕구



심층의미	가족과의 새로운 유대 관계
------	----------------

4. 〈훈술남녀〉의 담론 분석

계열체 분석과 행위주 분석에서 밝혀낸 등장인물들의 관계 구조와 대립 관계를 바탕으로 담론을 구성하는 주요 쟁점이 분류된다. 경제적 능력 확보, 학벌 중심, 능력 추구, 성공에 대한 집착,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 기존 가족과의 유대관계로 나타난 여섯 가지 쟁점들은 서로 대응하거나 대립하는 담론들을 생성한다.

표 5. 〈훈술남녀〉의 담론 논제

주요 쟁점	담론 논제
경제적 능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안정 경제적 풍요 추구
학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벌주의 균열 능력평가 기준으로서의 학벌
능력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 선호 배타적 경쟁
성공에 대한 집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적 기회 극복 노력 사회성 결여 목표 달성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만족의 기준
기존 가족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경제적 능력 확보’담론은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풍요를 추구하는 두 가지 담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나며 경제적 이익을 우위에 두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귀속된다. 여기서 나타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는 각 등장 인물들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존재적 근간이 된다.

‘학벌 중심’ 담론은 학벌주의와 서울대 중심주의 담론을 형성한다. 학벌주의는 출신 학교가 좋은 성과를 창출한다는 믿음과 이에 반대되는 믿음을 갖는 인물의 대립으로 드러나며, 이는 결국 학벌주의로 이어진다. 반면 서울대 중심주의는 서울대 출신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지배적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 담화는 대립된 담론을 형성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학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심주의’ 이데올로기를 배태한다.

능력 추구하고 관련한 담론은 주류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주류 선호’ 담론과 ‘배타적 경쟁’ 담론을 생성한다. 주류 선호 담론은 주류와 비주류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담화를 통해 전개되며, 이는 주류·비주류의 구분에 따른 차별을 만들어내고 인정하는 차별주의 이데올로기로 연계된다. 배타적 경쟁 담론은 각각의 인물이 경쟁 상황에 있어 충돌함으로써 나타난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대립으로서 경쟁주의 이데올로기를 담지한다.

성공에 대한 집착과 관련한 담론은 세 가지 담론을 생성한다. 여기서 성공은 경제적 능력을 수반하는 사회의 인정을 의미한다. ‘제한적 기회 극복’ 담론은 편견과 차별로 인해 기회가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에서 형

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경력이 미비하거나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보다는 검증된 경력을 우선시 하는 경력 중심주의를 발견하게 된다. ‘이익 중심’ 담론은 적절한 보상이 기대되지 않는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태도와, 어쩔 수 없이 이를 인정하는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달성’ 담론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있는 인물들의 담론을 통해 각 인물들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목표 추구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자아실현 이데올로기가 내재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한 담론은 가정으로부터의 소속감을 갈망하는 비자발적 1인 가구의 담론과 혼자 사는 생활이 보장하는 자유로움에서 만족을 느끼는 자발적 1인 가구의 대립 담론이 발견된다. 자발적, 비자발적 1인 가구들의 담론을 통해 각자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기준의 차이가 나타나며, 안정감을 추구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안정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도출된다.

가족과의 새로운 유대감에 대한 담론은 ‘독립 추구’ 담론과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담론을 생성한다. 독립 추구는 기존 가족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싶어 하는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된 가구로 살더라도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어가는 담론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 유지 담론을 파악할 수 있다. 이들 담론은 대립하지만 기존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불가능함을 강조함으로써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혼술남녀>의 담론과 이데올로기

쟁점	담론	이데올로기
경제적 능력 확보	경제적 안정 추구 경제적 풍요 추구	⇒ 자본주의
학벌	학벌주의 서울대 중심주의	⇒ 학벌주의
능력 추구	주류(主流) 선호 배타적 경쟁	⇒ 차별주의 경쟁주의
성공에 대한 집착	경력 중심주의 균형적 인간관계 자아실현	⇒ 사회화 자아실현
1인 가구 삶에 대한 만족도	소속감 추구 자유로움 추구 자기만족	⇒ 안정유지
가족과의 새로운 유대감	가족 간 관계유지	⇒ 가족주의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드라마 <혼술남녀>에 재현된 1인 가구의 생활상과 담론 및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기호학적 분석방법들을 시도하였다.

첫째, 서사구조 분석에서는 1인 가구가 지향하는 목표를 파악하고 각자의 성격 및 환경,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 1인 가구에 주어지는 갈등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경제적 능력 확보, 학벌, 능력 추구, 성공에 대한 집착, 1인 가구 삶에 대한 만족도, 가족과의 새로운 유대감 획득이라는 여섯 개의 쟁점들이 도출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사가 전개되고, 인물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의 관계구조가 드러났으며, 구체적인 담론들이 생성되고, 그에 따른 지배적 이데올로기들이 연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이들 관계들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각종의 차별 요소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 차별 요소로는 학벌 차별, 경력 차별, 기회균등 차별, 능력 차별 등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차별적 환경은 공평한 기회를 갈구하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과 절망을 시사한다. 특히 학력차별과 기회균등의 차별은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수저논란’이나 ‘헬조선’ 담론을 양산한다. 이는 청년들을 더욱 절망의 상태로 빠뜨리게 된다. 청년들은 이러한 차별들로 인해 대인관계나 가족관계를 포기하게 되며, 나홀로의 삶을 추구하는 1인가구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셋째, 등장인물들이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자아실현과 경제력으로 집약된다. 여기서의 자아실현은 1인 가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경제적 안정감과 사회적 안정감이며, 자기만족 역시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획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다양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측면은 개인의 능력보다 균형적 인간관계가 우선시되는 가치로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기존에 1인 가구를 사회성이 결여되거나 비정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온 것과 달리, 각자의 ‘나홀로 문화’를 향유하면서도 균형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성을 갖춘 양면성을 조명했다는 점이 아주 역설적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롭게 확장되고 보편화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기득권 중심주의 및 기존의 가족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의 자발적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조짐 역시 일어나고 있음도 발견되었다. 1인 가구 청년세대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관심과 학문적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본 논문은 백선기교수의 <청년문화와 미디어 재현>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백진주의 석사 논문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했음. 특히 본 연구는 1인가구 현상에 중점을 두었음.

참 고 문 헌

- [1]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자료, <http://meta.narastat.kr/>
- [2] 서정렬, *1인가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3] 백승민, 김민지, “1인가구 담론과 인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99-114, 2016.
- [4] 김동환, “1인 가구 특성이 주택입지 및 주택시설 중요도에 미치는 영화-위계적 2차 모형 및 상호작용 모형을 중심으로,” *住居環境*, 제14권, 제4호, pp.195-213, 2016.
- [5] 정희순, “한일 양국 1인가구의 사회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일본어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96-501, 2011.
- [6] R. Ronald, O. Druta, and M. Godzik, “Japan’s urban singles: negotiating alternatives to family households and standard housing pathways,” *Urban Geography*, Vol.39, No.7, pp.1018-1040, 2018.
- [7] J. Raymo, “Living alone in Japan,” *Demographic Research*, Vol.132, No.46, pp.1268-1294, 2015.
- [8] 김미경, 김지은, “‘나홀로 여행’ 동기에 따른 제약 요인 인식과 참여의도 차이 연구,” *Tourism Research*, 제41권, 제3호, pp.1-17, 2016.
- [9] 김종선, 김태균, 이창현, 진변석, *경박한 시사 경제 토크*, 팬덤북스, 2017.
- [10] 우지혜, 백선기, “청년 안에서 바깥으로: 미메시스이론을 근간으로 1990년대와 2010년대 청년세대의 저항 및 욕망과 대중음악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2, p.555, 2018.
- [11] 김도향, *1인 가구의 부상과 솔로이코노미*, 디지 에코 보고서: KT경제경영연구소, 2014.
- [12] E. Klinenberg, *Going Solo*, 안진이(역),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더퀘스트, 2013.
- [13] 김연옥, “1인 가구 시대의 도래: 특성과 생활실태,” *한국가족복지학*, 통권 52호, pp.139-166, 2016.
- [14] 홍성철, “1인 가구의 증가와 미디어 소비 행태 분석,”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16권, 제3호, pp.59-84, 2015.
- [15] 김혜영, “유동하는 한국 가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제15권, 제2호, pp.255-292, 2014.
- [16] 양진연, “대학생의 자기오락화능력, 교과목만족, 교수만족, 전공만족과의 영향 관계 연구,” *Tourism Research*, 제41권, 제4호, pp.149-168, 2016.
- [17] 이호길, “‘홀로여행객’의 자기오락화와 여가몰입과의 관계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26권, 제5호, pp.20-31, 2017.
- [18] 홍지아, “TV드라마를 통해 재현된 여성의 몸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9호, pp.122-143, 2010.
- [19] 김수아, 강명구, 우위지에, 차이관, “가족관계의 변이: 한중 텔레비전에 나타난 가족관계의 재현,” *방송통신연구*, 통권 65호, pp.143-173, 2007.
- [20] 서정렬, *1인 가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21] 김형우, “1인 가구와 방송 트렌드 변화,” *미디어와 교육*, 제5권, 제1호, pp.152-171, 2015.
- [22] 장운재, 김미라, “정서적 허기인가 정보와 오락의 추구인가: 먹방·룩방 시청동기와 시청경험, 만족도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제30권, 제4호, pp.152-

185, 2016.

[23] 김재민,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타난 결혼이주여성 이야기의 서사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24] 추다경, *미디어를 통한 역사 재현이 갖는 정치, 사회, 문화적 함의*,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25] 백선기, *미디어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26] 나은희, *드라마 <미생>의 서사, 신화 및 의미구조*,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7] 박인철, *파리학파의 기호학*, 민음사, 2003.

[28]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언어학과 문화 기호학의 만남*, 민음사, 1998.

[29] 백선기, *대중문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30] 오덕현, *TV 사극의 역사재현과 저항적 의미생산*,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1] 강민경, *탈북자, Talk show, 담화 및 담론: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모란봉 클럽>의 담론분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32] 강민경, 백선기, 남시호, “문화적 양극화, 탈북자 토크쇼, 정체성 혼란: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모란봉 클럽>에 대한 담화 및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 p.572, 2017.

[33] 안경희, 백선기, “교복 광고, 섹슈얼리티와 문화간 함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3, p.614, 2017.

[34] 백선기, *영화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35] 김광현, “이데올로기: 통시적 및 공시적 고찰,” *기호학연구*, 통권 17호, pp.115-134, 2004.

[36] 강금량, *TV 토크쇼에 나타나는 지배적 신화와 이데올로기 분석*,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7] 백선기, *보도비평 그 기호학적 해석의 즐거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저 자 소 개

백진주(Jinju Baek)

준회원



- 2011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학사)
- 201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관심분야> : 대중문화, 기호학, 담론연구, 문화연구

백선기(Seon Gi Baek)

정회원



- 1979년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81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1985년 :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박사과정 수료)

▪ 1989년 : Univ. of Minnesota, Communication Studies 전공(박사)

▪ 1990년 ~ 1997년 :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1997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현재 : PACA 회장, WCA 회장, IAMCR 국제평의회 의원, 한국방송학회 회장 및 한국기호학회 부회장 등 역임

<관심분야> : 기호학, 대중문화, 문화연구, 담론연구